

## “한옥마을 김장축제 전주 들썩들썩”

20일-21일, 한옥마을에서 김장축제 절정

2004년 11월 20일 / 전주시 문화관광과(281-2148)

### 일본 등 해외언론 취재 열기 후끈

“역시 김치는 맛의 고장 전주여.”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김장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장축제가 열리는 20일 전주 한옥마을에는 김치축제를 찾아온 일본NHK TV를 비롯해 서울에서 내려온 언론사들의 뜨거운 취재 열기와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거렸다.

특히 김치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김치를 취재하기 위해 NHK TV 취재팀이 전주를 찾아 열띤 취재를 벌여 관심을 모았다.

또한 KBS 1TV의 6시 내고향 팀을 비롯해 MBC, SBS 등 방송사 취재팀들이 대거 전주한옥마을 찾아 전주 김치축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언론의 취재 경쟁 못지않게 전주의 김장축제를 보러 몰려 든 관광객들의 발길 또한 계속 이어져 한옥마을의 맛과 멋에 감탄했다.

휴일인 21일에는 김장축제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성공축제를 예감하고 있다.

‘나눔과 사랑의 전통생활문화축제 2004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는 많은 전통음식 축제 가운데 오랜 명성으로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 김치의 참맛을 알리는 축제로, 축제를 통한 맛의 고장 이미지와 산업화를 연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전주한옥마을 김장축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김장이 전통생활 문화중에 하나였음을 관광객들에게 각인시켜주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축제로 한옥마을 한옥마당을 활용

한 한옥의 정취를 강조하는 축제로 치러진다.

또한 김장을 직접 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인기를 모았다. 나눔과 사랑의 김장축제 컨셉에 맞춰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시설 등에 사랑의 김장김치 보내기도 이루어졌다.

이번 축제는 전주한옥마을과 한옥 그리고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인 김장김치를 결합시킨 축제로 향후 ‘세계전통음식페스티벌’로 발전시켜 전통음식의 산업화를 목표로 펼쳐졌다.

한옥마을에서 벌어지는 김장축제를 관람한 관광객은 “전주의 맛의 비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전주의 김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맛이다”며 전주 김치 축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NHK방송은 한옥마을에서 벌어지는 김장축제를 비롯해서 우리집 김장담그기 체험, 한국을 찾아 전통혼례를 갖는 일본인 커플을 집중 취재하고, 공예품전시관, 전통문화센터 등에서 벌어지는 전통혼례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각도에서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의 김장축제는 12월 12일까지 계속된다.